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소식지

The News Letter, College of Phar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altair.chonnam.ac.kr/~pharmacy>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TEL (062) 530-2900 Fax (062) 530-2902 발행인: 이용복 발행일: 2012년 5월 14일

Message from the Dean

알찬 교육, 행복한 연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



이 지면을 통해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다 물러가지 않고 교정의 한 끝자락은 그래도 따사로운 햇빛이 반가운 듯 수줍은 벚꽃 봉우리가 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교직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 약학대학 제 18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저와 함께 우리 대학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게 될 부학장이익수 교수와 행정실의 조경환 팀장도

저희 대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2+4년제 입학생 64명을 새로이 맞이하였으며 현재 2+4년제 1 및 2학년과 기존 4년제 학생 약 30여명이 함께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국에는 35개의 약학대학이 설립되어 있어 교수 임용, 학생 선발, 취업, 연구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 약가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정책으로 인하여 제약기업과 개국약국 모두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이 발전해야 약사직능이 보전되고 약사직능이 보전되어야만 약학교육도 함께 발전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약사면허에만 안주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4년제 교과과정을 통하여 약무실무 실습을 강화시켜 우수한 약무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해 내어도 이를 수용해 낼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과당경쟁을 일으킨다면 약사의 직능은 퇴색될 것이 명약관화해 지고 약사면허나 직능 교육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약학대학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약대 교수 수도 약 300명에서 약 500명으로 급증하여 연구비 수주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학 출신 동문 총 8분(서울대 약대 이승희, 차의과학대 약대 조혜영, 전남대 약대 전창주, 목포대 약대 옥민호, 윤구, 이은영, 김현정, 순천대 약대 김항진)이 작년과 올해에 전국 약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 평균 조제건수 전국 10위 약국 안에 저희 동문 약국이 2개소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약사직능교육에도 충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함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희 대학에서 1983년 9월부터 봉직해 오시던 박행순 교수님께서는 지난 해 8월에 정년퇴임을 하신 관계로 현재 약학대학의 교수 수는 모두 16분으로 부족한 분야의 교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신입 학장으로서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여 필요한 분야의 교수 충원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와 교육 및 봉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학

개개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개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충분한데 이러한 장점들을 상호 인정하고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모든 연구 역량을 총 집결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개개 교수는 약학대학 교수단의 일원으로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양보도 하고 공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각 개개 교수님들의 장점이 살아 날 수 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 역량 결집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약학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교수단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내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4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대학본부와 더불어 모든 약학대학 구성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결집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Pharm. D.를 받은 윤현옥 선생님께서 저희 대학의 강의전담교수로 올 4월 1일부터 근무하시면서 약무실무실습 교육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임 천승훈 학장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11년 3월에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모금한 발전기금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본 재단법인에 행복장학금, 아이사랑장학금, 구오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이 쾌척되고 있어 장학사업과 연구 진흥사업이 순조롭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우수한 재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우열은 발전기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재단이 크게 성장하여 우리 대학이 법인화 등 예견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에서 이겨 세계적인 약학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약대발전기금 모금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동문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 약학대학이 주체가 되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고 약학대학 30년사 기념책자를 약학대학 총동창회의 후원을 받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대학이 개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총동창회 주관으로 치름으로서 저희 총동창회가 다시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약학대학의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과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약학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알찬 교육, 행복한 연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끊임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봄

약학대학장 이 용 복

학교소식

▶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2년 2월 24일 약대 100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명, 석사 6명, 학사 73명이 학위를 받았다.

▶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동문 초청 학술 세미나

약학대학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10월 28일 약학대학에서 동문초청 학술 세미나가 있었으며, 저녁에는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또한,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동문의 밤 행사에서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각 동아리의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준비로 재학생과 졸업 동문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약학대학 학부 / 대학원 우수 논문 발표회

2011년 12월 20일 약학대학 우수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 국내외 SCI(E)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과 함께 학부생들이 소속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 등을 종합 발표하였다.

▶ 교수/직원 세미나 및 연수회

교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발전에 대한 토의를 위해 2011년 7월 19일 교수, 직원 합동 하계 세미나가 해남 대흥사에서 진행되었고, 2012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학대학 교직원 동계 해외연수 및 세미나가 중국 상해-소주-항주에서 있었다.



▶ 연구장학재단 설립 및 스승의 날 행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2011년 5월 7일(토) 전남대약대 졸업동문과 명예교수 및 재직교수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금수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 94학번 졸업 동문 일생회 장학증서 수여식

모교 94학번 남자 동기들의 모임인 일생회에서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 8월 25일 김정철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하였다.

▶ 구오장학회 제 8회 장학증서 수여식

2004년부터 시작된 모교 95학번 남자 동기들이 주축이 된 구오장학회는 2011년 10월 29일 제 8회 구오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구오장학회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8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성미, 조영훈 학생에게 장학금 150만 원을 수여하고 선배들과 교류의 장을 가졌다.

▶ 전남대학교 학문후속세대양성 장학사업 선정

박사과정의 조속희(지도교수 : 조원제), 류태용(지도교수 : 김권섭), 유권희(지도교수 : 이용복) 학생이 2012학년도 전남대학교 학문후속세대양성 장학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교직원 동정

▶ 이용복 교수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제 18대 학장으로 보임 받았으며 2012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주)바이오인프라에서 개최한 기관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 참석하였다.

▶ 이익수 교수

한국생약학회 부회장(2011) 및 대한약학회 생약·천연물 분과학회장(2011 ~ 2012)으로 활동해 왔으며, 제52회 미국생약학회 학술대회(2011. 7. 30 ~ 8. 3, San Diego)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2년 3월 1일부터 약대 부학장(약학부장, 약학전공주임, 대학원 약학과 주임 겸무)직을 수행 중이다.

▶ 신상철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자문위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약 27년 6개월간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8월말 정년퇴임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 실버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및 색소폰 연주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24일(금) 11시 약대에서 있을 정년퇴임 기념연회에서 실용 음악 악기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 성충기 교수

‘체지방감소관련 기능성 한방식품제품 개발’ 이란 연구과제명으로 2012년 한의약 육성 제품화지원 연구개발사업 2차년도 협약을 체결, 2012. 1. 3. ~ 2012. 12. 31.까지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조원제 교수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IMECS 학회에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 하였으며 Computer-aided Drug Design Section 좌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Hindawi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E-Journal of Chemistry 와 Scientific Research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c Chemistr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창주 교수

2011년 11월 한국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청연자로 발표 하였으며, 2012년도 한국약제학회 학술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2011년 4월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국제심포지엄(KIST) 과 2012년 3월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국제심포지엄 (신라호텔)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6월 전남대 수용체-리간드연구사업단 주최 전남대약대-중국 심양약대 공동 세미나에서 초청연자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전남대-조선대 약학연구소 학술교류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으며, 2011년도 12월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약물전달시스템 융합연구단 Workshop(제주그랜드호텔)에 참가, 교류하였다.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후반기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공동) 신규과제에 이용복 교수(PI)와 함께 선정되어, 향후 3년간 매년 2억원씩(각 1억원씩) 총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윤현옥 교수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강의초빙 교원(부교수 대우)으로 발령받았다.

이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약학사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 미국 Howard University, Pharm. D.
-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약사면허 취득
- 미국 캘리포니아 Kaiser Permanente Hospital에서 수련



▶ 신임행정직원

최보현, 고은희 선생이 2011년 4월부터 근무 중이다.

▶ 신임조교

구영미, 황선영 조교가 2012년 3월 1일과 5월 1일자로 각각 발령받았다.

College of Pharmacy

연구소 · 사업단 소식

▶ 전남대-조선대 약학대학 공동 심포지엄

2011년 11월 22일 조선대 약대에서 전남대-조선대 약학연구소 학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진욱(조선대) 교수와 전창주(전남대) 교수가 연자로 초청되었다.

▶ 약품개발연구지 제 20권 발간

약품개발 연구지 제 20권이 2011년 12월에 발간되어 전국 관련대학 및 연구소에 발송되었다. 발간에 참여 하였던 김경만, 천승훈, 최현진, 이광열 교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 전남대학교 약품개발연구소 및 수용체-리간드연구사업단 주관 학술행사

2011년 4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7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College of Pharmacy

학생회 소식

▶ 약학대학 학생회 구성

학생회장 06학번 이종문, 11학번 14명, 12학번 12명으로 약학대학 학생회가 구성되었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27대 학생회가 출범하였다.

▶ 전약협 출범식

2011년 5월 4일 전국 모든 약대생들이 영남대학교에 모여 화합의 축제를 열었다. 우리 학교도 11학번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촬영해간 UCC는 폭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터넷 포털 연관검색어에 오르는 등 전국 약대생들에게 전남대 약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약대생들끼리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 동아리 '가뫼' 월출산 산행

2011년 5월 중순 월출산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11학번 1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어 야영 대신 산장에서 1박을 실시했다. 약대 설립 30주년 행사에서는 동아리 대항 장기 자랑에서 1등을 하였고 특별공연도 준비하여 식장 분위기를 더욱더 돋우었다. 2012년 현재 28명의 12학번 신입생이 들어온 상태이다.

▶ '약석' 동아리 하계 무료투약봉사

2011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석'의 재학생 회원들과 졸업생 회원들이 해남군 계곡면으로 무료 투약봉사를 다녀왔다. 봉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

▶ 동아리 '단향' 생약 전시회

2011년 9월 동아리 '단향'이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생약 전시회를 열었다. 많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생약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새내기 배움터

2012년 2월 17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배움터 행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안내되었다.

▶ 약학대학 전체 MT

2012년 3월 9일 ~ 10일 약학대학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복귀 적십자 수련원에서 MT를 실시하였다. 교수님들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MT에서는 신입생 장기자랑,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 · 지 · 사 · 향

대학원 석·박사과정(타학과 출신도 가능)을 모집·안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약대 문의처: 530-2920)

구분	특별전형 (후기)	특별전형 (전기)	일반전형 (전기)
전형	2012. 5.	2012. 10.	2012. 11.
시험 과목	면접고사	면접고사	필기시험, 면접고사

전남대 동문 주소록

동문들 간의 원활한 연락 및 소식 전달을 위해 새로운 동문 주소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62) 530-2920
- F A X : 062) 530-2949
- E-mail : duli10002@naver.com

College of Pharmacy

동문소식

▶ 전남대약대축구모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동문들의 건강과 단합을 위한 축구모임 '전남대약대축구모임'이 신설되어 2009년 6월 14일 제 1회 모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관심 있으신 동문 졸업생들께서는 다음 카페에 개설된 '전남대약대축구모임'(<http://cafe.daum.net/CNUPsoccerclub>)을 방문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약대 동문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은 530-2920으로 연락바랍니다.

◆ 약학대학 발전기금

광주은행 : 074-107-004336

(예금주: 전대약학대학발전기금)

◆ 연말정산시 관련법에 의해 기부금의 100% 소득공제 (법정기부금임)

18종류 순수 생약의 복합작용으로

비만, 변비, 부종 **INs Pharm** 베스탑으로 !!!



www.inspharm.co.kr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5-15 ■광주: 전남 화순군 통진 1065